

18세기 고소설의 속물형 아버지와 효 윤리의 재설계

—〈완월회맹연〉의 장헌을 중심으로*—

김수연**

〈차 례〉

1. 시작하며 : 효와 아버지의 불사(不死)
2. 가부장제의 위기적 징후, 교영과 화춘
3. 속물형 아버지의 본격화, 〈완월회맹연〉의 장헌
4. 효 윤리의 재설계, 대효(大孝) 서사의 강화
5. 마치며 : 아버지의 죽음과 가부장제의 불사

〈국문초록〉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은 것’을 핵심으로 하는 ‘효’는 아버지를 불사의 존재로 만드는 메커니즘으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핵심 윤리이다. 그런데 가부장제가 절정이던 조선후기, 적지 않은 소설에서 아버지의 도를 비판하고 부정하면서도 ‘효자’의 이름을 얻는 자녀 서사가 발견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불사와 가부장제의 불멸을 지탱하는 ‘효’가 아버지의 권위를 흔들고 가부장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데 참여하는 듯 보인다. 이때 부각되는 것이 ‘속물형 아버지’와 ‘대효(大孝) 서사’이다.

이 글은 속물형 아버지 캐릭터가 본격화된 〈완월회맹연〉의 장헌을 중심으로 소설이 포착한 가부장제의 위기적 징후를 살피고, 대효 서사를 중심으로 효 윤리의 서사적 재맥락화 양상을 살폈다. 장헌으로 대표되는 속물형 아버지는 조선후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개별자 아버지와 가부장제 사이의 ‘불화’를 상징한다. 장헌은 속물형 아버지의 진지한 생존 전략이 조롱거리로 희화화 되면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89670)

**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가부장제와 분리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한 순임금의 대효 서사가 강화된다. 대효 서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반적 효의 차원을 넘는 더 큰 효로서, 효로써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도’를 고치도록 재설계된 대효는 필요에 따라 생존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가부장체제의 약점을 드러낸 개별자 아버지의 죽음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효 윤리의 재설계로 불사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가부장제는 또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 <완월회맹연>, 속물형 아버지, 가부장제, 대효, 아버지의 불사(不死)

1. 시작하며 : 효와 아버지의 불사(不死)

‘효’란 무엇인가? 공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실을 관찰하여 3년 동안 (자식이)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¹⁾라고 말했다. 자식이 마음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도를 따를 때 비로소 ‘효자’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이란 최소한의 기간이자, 상징수이다. 부친 사후 최소 3년 동안 부친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계승하라는 요구는 평생 ‘아버지의 뜻’을 지키라는 말이다.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는 명제가 권위를 지니는 사회의 ‘아버지’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효’는 ‘아버지’를 불사(不死)의 존재로 만드는 인식과 행동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불사(不死)는 가부장제의 핵심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는 힘’으로 작동할 때에만 가부장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권위를 ‘살아 있는 힘’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효’의 역할이다. ‘효’는 자식들의 인식 및 행위규범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질서를 가동시키고

1) 『論語』『學而』, 11장, “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유지하는 원리와 양식이다. 가부장제가 ‘효’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효’가 가부장제의 존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효’는 가부장제를 사회의 기본질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수행적 기제인 것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고쳐서는 안 되는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기립과 존경의 대상이지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가부장제가 절정이던 조선후기에 등장한 소설 중에는 종종 자식에게 비판받는 아버지가 등장한다.²⁾ 그들의 ‘도’는 부정되고 개선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도’를 고치려고 하는 이들이 지극한 ‘효자’라는 점이다.³⁾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불사와 가부장제의 불멸을 지탱하는 ‘효’가 아버지의 권위를 흔들고 가부장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효’의 반란이자 역습이라고 할 만하다. 정말 ‘효’는 가부장제를 전복하려고 하는가?

이 글은 조선후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효의 역습을 살피고자 한다. 아버지와 가부장제에 철저히 충성했던 ‘효’가 왜 아버지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요소처럼 그려지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절하는 딸과 어리석은 아들을 살핀 후 속물형 아버지와 대효(大孝) 서사를 다룰 것이다. 전자는 아버지의 도가 계승되지 않는 위기적 징후이고,⁴⁾ 후

2)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은 사적(私的) 차원의 부자갈등으로 다루었다.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2015, 83~109쪽. 이지영은 아버지를 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이고, 아들은 폭력적 아버지를 재연하거나 아버지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3) 장편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해서는 조광국, 『벌열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벌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2005, 135~161쪽 참조. 이 글에서는 효담론이 ‘부악자선(父惡子善)’의 공식 하에서 제시되는데, 이것은 선한 자식이 악한 부친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명제를 드러낸다고 했다.

지는 효의 역습이 일어나는 가부장제의 본격적 위기 국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17세기 <소현성록>과 <창선감의록>의 교영과 화춘은 아버지의 질서에서 일탈하는 자녀를 보여준다. 이들은 아버지의 영토에서 제거되거나 후경화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18세기 <완월회맹연>의 장헌은 개별자 아버지와 가부장제 사이의 ‘불화(不和)’를 나타낸다.⁵⁾ 장헌으로 대표되는 속물형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위기를 나타내는 ‘표상’이지만, 그의 ‘도’는 대효를 실천하는 자녀에 의해 부정되고 은폐된다.

가부장제는 속물형 아버지의 등장으로 가시화되는 체제의 위기를 ‘효의 역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⁶⁾ 아버지의 권위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동할 때는 아버지의 불사가 체제의 불멸에 기여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속물형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모순과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 체제의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가부장제는 ‘효’에 아버지의 ‘도’를 넘어서는 권위를 부여한다. 그것이 ‘대효’이다.

이전까지 ‘효’는 아버지의 ‘도’에 종속되어 아버지의 ‘불사’에 봉사했다.⁷⁾ 그러나 이제 ‘효’는 아버지의 ‘도’를 넘어서는 메커니즘으로서 아버지의 ‘도’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것이다. 이것을 위해 소환되고 강화된 것이 순 임금의 ‘대효 서사’이다. 아버지의 ‘도’를 넘어서는 인식과

-
- 4) 위기적 징후는 집단 체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의 돌출이기도 하다.
 - 5) 그밖에 <완월회맹연> 속 다양한 아버지 양상에 대해서는 탁원정,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5, 2019, 5~32쪽 참고.
 - 6) 이러한 논의의 단초는 조광국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조광국은 별렬소설의 효 담론이 별렬가문의 자기갱신, 명분론적 종통계승, 도덕과 환로의 회복 지향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별렬가문의 위기의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효의 역습이 지닌 속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광국, 앞의 논문, 148~157쪽.
 - 7) 효제의 논리에 자녀세대의 삶이 종속해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수행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2015, 141~175쪽 참고.

행동의 기제로서 재설계된 ‘대효’는 필요에 따라 아버지의 죽음도 선언한다. 효 윤리의 재설계로 불사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가부장제는 또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2. 가부장제의 위기적 징후, 교영과 화춘

17세기 장편소설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는 소설의 주제는 ‘효’이다. 특히 가문소설의 성격을 지닌 <소현성록>과 <창선감의록>은 ‘효’를 체현하는 인물을 중심 캐릭터로 등장시켰다. ‘효’를 체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도를 잇는다는 의미이므로, ‘효자’라는 평판은 가부장이 될 자격 요건이 된다.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경은 사후 비문에 ‘효의 선생’이라 새길 만큼 당대에 뛰어난 효자로 나온다.⁸⁾ 그가 홀로 되신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는 것은 효자의 대명사인 증자(曾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⁹⁾ <소현성록>을 지어 세상에 알리는 이유도 소경의 효행을 권장하기 위해서이다.¹⁰⁾ 소경은 이상적인 가부장의 조건을 구현한 인물인 것이다.

작품의 배경도 소경의 효행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역할을 한다. 도입부 <소승상본전별서>에는 송나라 인종(仁宗, 1022-1063) 황제가 재상 소경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포증과 여이간에게 명하여 <소현성록>을 편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송 인종은 역사상 어질고 효성스러운 인물로 평가되는데,¹¹⁾ <소현성록>의 작가도 이와 같은 평가를 확인해주듯 인종

8)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서문 2쪽, “비문의 사기더 효의선생이라 하시니라”

9)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서문 1쪽, “편모효양을 정성의 못 맞춘 더 업스니 비록 넷 증지라도 이에 디나디 못홀 배오”

10)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서문 3쪽, “여러 권 설화롤 세상의 던흐든 대개 사름의 어미 되야 공의 효행 궂뜯물 권흐미라”

11) 『宋史』 권9, “天性仁孝寬裕, 喜慍不形於色.”

을 ‘태후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여 후궁들을 찾을 마음도 생기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¹²⁾ 이로 보면 소경은 효자 황제도 드높이는 효자인 것이다.

소경의 ‘효’는 절대적이다. 그는 부부관계까지도 ‘효’에 구속되는 삶을 산다. 소경이 그의 아내 화부인과 갈등하는 이유도 부친의 첩인 서모 석파에 대한 효심이기 때문이다. 석파는 화부인의 자질이 소경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빌미로 석씨를 첩으로 들이라고 종용한다. 이것을 안 화부인은 평소 남편에 비해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기던 불안함이 극에 달하여, “이는 삼생의 원수이다. 만일 석현의 딸을 데려온다면 마땅히 찢어 죽여 분을 풀고 늙은 년이 하늘의 재앙을 입어 죽는 것을 볼 것이다. 분명 석씨녀를 데려와 숙질이 공모하여 태부인과 우리 부부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계교이다.”¹³⁾라고 석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때 소경은 석파를 정성으로 위로한다.

시랑이 고개를 낮추어 듣고 나니 벌써 마음의 상냥함이 지나칠 정도였다. 이에 탄식하고 위로하며 죄를 일컬어 말하기를, “이 말을 들으니 저의 마음이 후련합니다. 당초에는 실로 무슨 연고인 줄 알지 못하고 놀랐는데 자세히 듣고 나니 이 또한 저의 죄입니다. 화씨가 쾌약한 것이 다 제가 잘못된 죄입니다. 한 날 화씨의 어리석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 허물이 더욱 중합니다. 서모께 불경한 것은 족히 내쳐버릴 만하지만 어머니께서 불편하실 것이고 자식이 있으면 내칠 수 없다는 말을 살피며 머무르게 하니 이 또한 저의 죄입니다. 손을 다친 것은 서로 무심한 중에 일어난 것이니 어찌 이 일을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 얼굴을 보아 노기를 가라앉히십시오.”¹⁴⁾

12)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권14, 43쪽.

13)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권1, 94쪽, “츠는 삼생수인이라 만일 석현의 딸을 데려올던대 당〓이 쓰져 죽여 분을 풀고 늙은 년이 텃양 넘어 죽으믄 보리라 반드시 석녀를 데려와 숙질이 동모호야 부인과 우리 부처의 목숨을 굶츠려 호는 계교로다”

14)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권1, 97쪽, “시랑이 고개를 느즈기 호야 듯기를 므츠매 불서

서모 석파와 정실 화부인 사이의 갈등은 고부갈등의 양상을 띠는데, 여기에서 소경은 분명하게 석파의 편에 선다. 그는 원래 첩을 둘 마음이 없었음에도, 석파가 추천한 석씨를 첩으로 맞이한다. 친모인 양부인에 대한 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서모인 석파에게까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냥함과 공경으로 효를 실천하면서, 소경은 아버지의 도를 잇는 가부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소씨 가문의 위상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경이 모친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은 유복자로서 부친의 뜻을 잇는 방법이다. 양부인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부친 소광은 죽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제사를 잇게’하라는 말을 남겼고,¹⁵⁾ 그 말에 따라 양부인은 남편이 죽은 ‘사소한 설움’을 참고 집안을 일으키려는 ‘큰 의리’를 생각해 육즙을 마시며 소경을 건강하게 낳았다. 양부인은 소광에게서 소경으로 가문의 지배권이 잘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안을 엄격히 다스리고 아이들을 훈육한다. 소광이 남긴 가문을 온전히 지키고 소경을 다음 세대 가부장으로 세우는 일이 양부인의 임무인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재하는 아버지의 집은 위기의 요소를 내포한다. 집단과 사회의 위기는 희생양을 요구하고 그 희생양을 없애거나 추방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르네 지라르의 말처럼,¹⁶⁾ <소현성록>에서는 소씨 가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딸 교영을 희생물로 삼는다. 교영은 남편 이한림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에 연좌되어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

등심의 상냥함미 과인헌디라 이제 탄식고 위로함며 죄를 일크라 굴오디 찬언을 드르니 경의 믿음미 식훤훤이다 당초는 실노 아모 연관 줄 아디 못하고 차악헌디니 조시 듯조오매 이 또흔 경의 죄라 화시의 패악함미 다 제가 못흔 죄라 혼넛 화시의 혼단만 잇디 아나 내의 허름이 더욱 등헌디라 서모의 불공함미 죽히 내침죽흥오디 모친이 불평할 거시오 유즈식불거를 슬퍼 머무르니 이 또흔 경의 죄로소이다 지어 손이 상흔 서르 무심등이라 었디 일로써 개회헌시리잇고 청컨대 내 늦출 보와 식노헌쇼셔”

15)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권, 11쪽.

16) 르네 지라르, 김진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45쪽.

에서 유장을 만나 3년을 함께 지낸다.¹⁷⁾ 교영이 해배되어 집에 돌아온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양부인은 딸에게 독주를 내려 죽음을 명령한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감정적 동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딸을 죽이는 것이다.

“네가 타향에서 유배생활을 했어도 몸을 깨끗이 하여 돌아올 것인데 문득 실절하여 죽은 아버와 산 어미에게 욕이 미치고 조상에게 불행을 끼치니 어찌 차마 살려 두겠느냐? 친정에는 못난 딸이고 시집에는 더러운 며느리가 되어 천지간에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므로 오늘 부모 자식의 정을 끊어 한 그릇 독주를 주니 빨리 마셔라.”-중략-

“네 스스로 네 몸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재촉을 기다리지도 않고 죽을 것인데 무슨 면목으로 용서 두 글자를 꺼내느냐? 내 자식은 이렇지 않을 것이니 나를 어미라 부르지 마라. 네가 비록 유배지에서는 약해서 실절을 했지만 돌아와서는 거절하는 것이 옳거늘 문득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여 거주지를 가르쳐 주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이는 나를 토목같이 여긴 것이다. 내 비록 일개 여자이지만 자식은 처치할 것이니 이런 더러운 것을 집안에 두겠느냐? 내가 비록 구천에 가더라도 남편과 아버지를 무슨 낮으로 보겠느냐?”¹⁸⁾

17)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권, 34쪽, “니한님 처 교영이 덕소의 머므니 것집의 뉴장이란 빅성잇 사름이 잇더니 상쳐호고 환거호야 어딘 겨집을 구홀시 니한님 체 격장의 이셔 외로오물 듯고 서러 쫓이 마자 스통호여 사란 디 삼년의”

18)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권1, 39~40쪽, “네 타향의 덕거호나 몸을 조히 호야 도라올 거시어늘 문득 실절호야 죽은 아버와 사랏는 어미게 욕이 미츠며 조션의 불행을 갖치니 엇디 츄마 살와두리오 친가의 불초 네인 구가의 더러운 겨집이 되여 텃디간 죄인이니 당〓이 죽업죽호 고로 금일 조모의 정을 긋쳐 호 그릇 독주를 주느니 쾌히 먹으라 -중략- 네 스스로 네 몸을 생각하면 죽으며 타인의 지촉을 기다리디 아니려든 어느 면목으로 용사 두 지 나느뇨 내의 조식은 이러디 아니리니 날드려 어미라 일컫디 말나 네 비록 덕소의서 약호므로 절을 일혀시나 도라오매 거절호미 울거늘 문득 서러 만나를 언약호야 거두를 그르쳐 이에 츄자 와시니 이는 날을 토목듯디 너기미라 내 비록 일 녀지나 조식은 쳐티호리니 이런 더러운 거슬 가뉘의 두리오 네 비록 구천의 가나 니심과 내 부친을 어느 낮츠로 볼다”

양부인의 목소리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애뜻함이 없고 가문에 수치가 되는 ‘더러운 것’을 한시바빠 죽여 없애려는 다급함만 있다. 교영이의 실절은 그 자체로 가부장제의 이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징후이므로, 매우 위험한 사건이다. 그녀는 딸 교영이 유배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남편과 아버지의 시선으로 가문에 위해가 되는 딸을 처단한다. 즉결처분을 내리는 양부인의 모습에서 교영이를 잠시라도 살려둔다면 금방이라도 집안 전체가 오염되고 붕괴될 것같은 위기감이 일어난다. 양부인은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표상되는 가부장제의 위기를 제거하고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도를 잇는 효자 소경에게 전해주기 위해 딸의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다.

〈소형성록〉이 교영이라는 실절한 딸로 가부장제의 위기를 드러내었다면, 〈창선감의록〉이 보여주는 가부장제의 위기적 징후는 더욱 심각하다. 가문을 이을 장자가 효자는커녕 우매한 소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창선감의록〉의 ‘아버지’ 화옥은 명나라 개국공신 화운의 후손이며 사람됨이 엄격하여 천자도 중하게 여기는 인물이다.¹⁹⁾ 그런데 그런 부친의 도를 이어야 하는 장자 화춘은 품격이 평범해서 화옥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²⁰⁾ 화춘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인 것이다. 가부장제는 아버지의 ‘인정’ 하에서 부자 간 연대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작동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부친에게 ‘집안을 망하게 할 못난 아들’²¹⁾이라는 평을 받는 장자는 가부장제의 위기를 드러낸다. 화춘 때문에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말은 그가 부친의 도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는 분노이고, 오히려 아버지가 이룩한 질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기 때문이다.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양부인이 교영이를 평가했던 말과 동

19) 〈창선감의록〉 국도본, “公爲人, 方嚴峻整, 鍊達治體. 天子重之.”

20) 〈창선감의록〉 국도본, “其子瑋, 品格凡庸. 公不甚愛之.”

21) 〈창선감의록〉 국도본, “小子無狀, 吾家亡矣!”

일하다.²²⁾ 그러나 화춘은 <소현성록>의 교영처럼 가문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화춘을 징치하는 것은 장자의 ‘부적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제가 지닌 모순과 치부를 공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적장자를 징치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므로, 가부장제 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화춘은 면죄부를 받는다. 남성에게 주는 면죄부는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방식이다.²³⁾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아닌 ‘우인’으로 그려질 뿐이다. 어리석은 그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얻고,²⁴⁾ 형식적이지만 장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화춘이 받았어야 할 징치는 그를 뛰어난 죄인으로 지목당한 ‘악인’ 조씨가 모두 받게 된다.

우인형 적장자 화춘의 등장은 가부장제에서 노정되는 위기적 징후를 드러낸다. 이때 국가와 가문 간 연대로 이루어진 가부장적 질서는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를 제거하지도 않는다. 단지 ‘어리석은 개인’으로 재서술하면서 지배구조와 개인 간의 거리두기를 할 뿐이다. 처음에는 집안을 망하게 할 큰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다. ‘어리석은 개인’이 된 화춘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지만 아버지의 세계를 계승할 자격은 유예된다. 화춘이 가문의 계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효자로서, 아버지를 대리하는 동생 화진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아들 화진은 3,4세의 나이부터 모친이 읽는 『효경』을 곁에서 듣고 외우며, 부친에게 ‘가문의 보배’로 인정받는다.²⁵⁾ 화진이 가장 먼저 접한

22)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권1, 18쪽, “교영은 밧그로 닝담하고 뜻이 죄듯 하나 그 믿음은 붓치는 거미줄 갖더니 내 근심하는 배 소양 이문의 청덕을 이 아히 찌러 버릴가 두려호노라”

23) 조현철,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화사연구』, 1999, 127쪽.

24)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 무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335~363쪽.

25) <창선감의록> 국도본, “鄭夫人兒子, 長三四歲, 髻髻兩髻, 犀角豐盈, 慧語驚人, 英

책이 『효경』이라는 것은 그의 핵심 덕목이 ‘효’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효’를 구현하는 규범적 인간의 전형으로,²⁶⁾ 가문의 안과 밖에서 순임금보다 뛰어난 효자로 평가받는다. 조정의 관료들은 화진을 “화씨 가문의 효자 [花家孝子]”로 일컫는다. 화진의 효성이 대순과 증자보다 낫다는 공론은 그가 화옥의 뜻을 계승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고, 화씨 가문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 ① 첩의 지아비 화진이 그 어미를 섬길 때 지극한 효를 행하고 또 동생으로 형에게 극히 공손했던 일은 첩이 감히 꾸미거나 여기에 아첨하려고 쇄를 가리켜 금이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순임금이 다시 태어나시고, 전금이 죽지 않는다 해도 화진보다 더 나은 행실이 없을 것입니다.²⁷⁾
- ② 계향은 등문고를 치고 평은 글 한 장을 지어 한림의 효성은 대순과 증자보다 낫다 하여 칭찬하고 춘의 죄는 나열하여 도올과 도척보다 심하다 하였다.²⁸⁾

부친 사후 적모 심씨와 만형 화춘에게 보인 지극한 효성과 우애로 화진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가문의 계승권자로 인정받는다. 그가 아무리 화춘이 장자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화진을 가문의 실질적 계후자로 보는 것이다. 효자 화진이 가장으로 존재할 때에만 화씨 가문의 위상이 우뚝 설

兩流彩。鄭夫人每讀孝經，兒輒侍坐案側，潛聽而默誦之，亦頗解文義。公常曰，此吾家連城之璧也。”

26)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창선감의록〉의 화진」, 『고소설연구』 32, 2011, 123~152쪽.

27) 〈창선감의록〉 국도본, “妾夫花珍, 事母極孝, 爲弟極恭. 妾非敢阿好而指鐵稱金也. 雖使大舜復生, 展禽不死, 必不能多過於花珍也”

28) 〈창선감의록〉 국도본, “桂香擊鼓登聞. 平作一張大狀, 鴛讚翰林, 出於大舜曾子之上. 臚列瑋罪, 甚於檣杵盜跖.”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선감의록>은 화진의 우애로 장자 화춘이 형식적이거나
 마 가장의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 그러나 화춘이 화진의 아들을 양자로 맞
 아 집안의 대를 잇게 함으로써, 중국에는 화진이 화옥의 가장권을 이어가
 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절한 딸이나 어리석은 아들로 드러나는 가부장
 제의 위기는 독주를 내려 제거하거나 우인으로 만들어 후경화하는 방식으
 로 기존 질서 내에서 은폐되는 듯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아버지 그 자
 신에게서 나타난다.

3. 속물형 아버지의 본격화, <완월회맹연>의 장헌

국문장편소설이 창작 향유되던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조선후기를 이야
 기할 때, 종법제의 강화를 특징으로 든다. 적장자가 부계 조상을 계승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법제²⁹⁾ 가부장제의 핵심 요건이니, 종법제의 강화
 는 가부장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권위가 전대에 비해
 더욱 공고해지고 절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종법
 제의 강화는 ‘아버지’의 권위에 위기적 증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
 이기도 하다.

조선후기에 종법제가 강조되던 배후에는 전란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전기까지 사회적 권력계층과 경제적 자본계급
 은 대체로 일치했다.³⁰⁾ 그러나 양란 이후 사회적 불안으로 계층과 계급의

29) 지두현,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8, 116~120쪽; 강창동,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43-1, 2005, 114~
 116쪽.

30) 카를 마르크스(Marx, K.)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같은 경제적 요소에 따라 서열
 화된 위치의 집단을 계급이라 했고, 막스 베버(Weber, M.)는 계급, 지위, 권력의 세
 차원을 고려한 구분을 계층으로 보았다.

뒤섞임이 일어나고, 권력계층과 자본계급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³¹⁾ 우리는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날카로운 포착을 확인할 수 있다. 권력과 자본의 불일치는 공고했던 아버지의 권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요동하는 계급과 계층의 파고 속에서 권력과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아버지의 위상은 전위 혹은 전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과 자본의 계승 제도인 종법제의 강화가 절실했던 것이다.³²⁾

종법제의 강화는 위기의 ‘아버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마련한 방책이다. 종법제로 인해 가부장권의 집중화가 본격화 된 것이다. 가장은 명실상부하게 집안의 중심이자 대표가 되었고, 그 권위는 ‘종교집단의 교주’에 비견될 만하였다.³³⁾ 그러나 한편으로 강화된 가장의 지위가 유지되려면 실질적인 ‘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했다. 즉 관료적 출세를 하거나 경제적 치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속물형 아버지이다.

속물형 아버지는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불안한 지위를 인정받고 아버지의 불사성(不死性)을 회복하려는 가부장이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가치관에 장악되지 않는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때그때의 ‘이익’이다.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이익을 위해 끝없이 세계와 자신을 성찰한다.³⁴⁾ 속물형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입장을 가볍게

31) 김수연, 『조선 후기 한문단편에 나타난 농업과 농업인-經農과 治農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2014, 5~29쪽 참조.

32)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로 사족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치를 강조했으며, 이것이 종법제의 강화로 이어진다. 사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신분적 지위가 흔들리자 적장자 중심의 위계질서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창동, 앞의 논문, 118~119쪽.

33) 윤사순, 『양반의 정신세계』, 『한국사 시민강좌』 29, 일조각, 2001, 57쪽.

뒤집을 수 있고, 도덕적 비난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생에 대한 진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한다. 그들의 진지성은 ‘아버지’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동하는 것이다.

당대 현실에 민감한 국문장편소설은 속물형 아버지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기미’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속물형 아버지는 권력형 속물의 성격을 보인다.³⁵⁾ 권력형 속물은 정치적·신분적 생존을 도모하는 인물 유형이다. <완월회맹연>의 장헌에서 권력형 속물 아버지의 전형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의 장헌은 주로 소인형 인물로 규정되었다.³⁶⁾ 그러나 장헌은 일반적 소인과 다르다. 소인이 대부분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인으로 형상화되는 데 반해, 장헌은 악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주인공 가문과 친밀한 ‘군자당’의 구성원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어진 관리이다.³⁷⁾ 그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지역 백성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헌이 높은 선비의

34) 속물은 도구화된 성찰성으로 성공과 치부를 반성 없이 추구하며 생존을 핵심 가치로 두는 주체 양식을 말한다.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8~25쪽.

35) 18세기 말 이후에는 권력형 속물 외에 자본형 속물 아버지의 분화가 보인다. <보은기우록>의 위지덕이 자본형 속물 아버지의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36)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국문학연구』 4, 2000, 231~259쪽. 소인형 인물에 대한 논의는 한길연에 의해 여성의 ‘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웅서대립담 연구-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2003, 277~315쪽. 여기서는 장헌이라는 인물이 기존에 ‘소인형’이라 규정했던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이를 속물형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37) 정병설, 위의 논문, 239~252쪽. 정병설은 ‘소인’이라는 개념이 계급적 개념(피지배층)-도덕적 개념-정치적 개념으로 변화했음을 밝히고, <완월회맹연>의 ‘소인’은 정치적 개념으로, 탕평론에 기초한 인물 형상화는 조선후기의 정치현실과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했다.

기풍은 없으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직무를 그릇되게 하는 일이 없었고, 소주 같은 큰 주를 6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어진 덕으로 백성을 거느려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었던 까닭에 그가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다.”³⁸⁾ 이렇게 묘사되는 장헌의 모습은 ‘소인’이라는 개념의 일반적 범주에서 볼 때 일탈적 현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장헌은 어떠한 인물인가? 장헌의 부모인 유생 장합과 위씨는 원래 영천 사람이었다. 그들은 영천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자 이리저리 구걸하며 떠돌다 서울로 올라와 정한이 세운 구빈관에 머물면서 정씨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다. 장합의 부친은 형부 낭중 장위로서, 정한의 부친이 친구의 예로 대하던 인물이었다. 집안이 몰락했지만 관료층에 속하는 양반신분이었던 것이다.³⁹⁾ 그러나 위씨가 아이를 낳고 삼칠일 만에 죽고, 장합도 이어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장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아가 된 것이다.

- ① 장헌이 태부 정한과 서부인의 사랑을 입어 무사하게 장성하니, 태부가 수고를 마다 않고 지성으로 가르쳤다. 장헌은 사부가 가르치는 대로 날이 밝으면 어두워질 때까지, 불을 밝히면 밤이 깊을 때까지 독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 번 읽으면 장헌은 백 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백 번 읽으면 장헌은 천 번을 읽었다. 그렇게 하여 어리석고 둔한 것을 크게 깨치고 상쾌한 문사가 된 것이다. 그는 시속의 재주 있는 선비가 지은 시구를 업신여기고 경서와 사서의 옛 책들 중에 모를 것이 없었으며 문장력과 필력이 넉넉할 뿐 아니라 풍모와 생김도 화려하여 봄날의 버들 꽃 같았

38)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25쪽, “당헌이 고소의 풍이 업스나 스부의 교학을 받드러 덕임의 그른 일이 업고 소주 갓튼 응취의 녹년을 디너디 불의를 범치 아니하고 인민을 거느리미 인덕의 갓가오니 인민이 원언이 업던 고로 그 도라가물 당하여 눈물을 흘니고 앓기더라.”

39) 작품에서는 장헌을 송나라 명현 장충정의 후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8.

다. 이에 태부가 각별하게 사랑하며 일찍 성숙한 것을 기뻐하였다.⁴⁰⁾

- ② 다만 이빈 등과는 그 사람됨이 전혀 달라서 좃대가 없으니 여러 벗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한다면 어진 장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망측하고 해괴하며 허랑하고 신의 없는 데 이르기 쉬우니 태부가 늘 정대하고 정직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장헌은 마침내 엄격하고 정중하지 못하고 부귀의 탐욕이 있으니 태부가 더욱 민망하게 여겼다.⁴¹⁾

인용문은 장헌의 유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충분히 어리광 피우고 청얼대고 철없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모든 실수와 유예와 시행착오가 용납되고 이해되는 기간이 유년기의 특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장헌은 그 시기를 사부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계발’을 했다. 정한 부부가 사랑하고 “수고를 마다 않고 지성으로” 기르고 가르쳤다고는 하나, 그들의 보살핌은 스승과 사모의 것일 뿐이다. 부모 없이 었혀 사는 장헌의 성장기는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열 번 읽으면 장헌은 백 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백 번 읽으면 장헌은 천 번을 읽어”야 했다.

장헌은 스승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의 “어리석고 둔한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것을 깨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일찍 “시속

40)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20쪽, “당헌이 태부와 서부인 무이지훈을 넘어 무스히 당성히디 태부 디성 교학하니 슈고로오물 피치 아니코 스부의 가르치논 디로 날이 붉으면 어둡기를 괴약하고 불을 붉히면 아심토록 독셔호여 타인이 심독호면 현은 빅 번 넓고 타인이 빅 번 넓으면 현은 천독호여 용둔호 거슬 크게 통호디 상활호 문시 되여 시속 지스의 시귀를 묘시호며 셔스고격을 모를 거시 업셔 문필이 유여호 쓴 아니라 풍신 형피 화려호여 삼춘유화 갖트니 태부 각별 스랑호며 슈성호를 짓거호디”

41)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20~21쪽, “다만 니빈 등과 인물이 니도호여 등무소슈호고 덩슈히 인도홀진디 현인 당부 될 거시오 그러치 못홀던디 망측회피호여 허랑무신키의 갖가오니 태부 미양 당대 절딕기로 경계호디 맞춘니 엄둥치 못하고 부귀의 탐욕이 이시니 티부 더욱 민망이 녍이더라.”

의 재주 있는 선비가 지은 시구를 업신여기고 경서와 사서”에도 통달한 “상쾌한 문사”가 될 수 있었다. 태부가 장헌을 “각별하게 사랑”했다는 것과 “일찍 성숙한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에서 태부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어린 장헌이 얼마나 노심초사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성장기의 경험은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인생 철학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헌의 성장기는 정한의 인정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며 극도의 자기계발을 위한 여정이었다. 장헌의 인정투쟁과 자기계발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재건과 관련이 깊다. 조부와 부친이 없는 장헌에게 집안의 재건은 자신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훗날 사돈이 되는 정삼·정삼 형제나 사위가 되는 정인광은 정이천의 후손이라는 권위와 정한 대에 정점을 찍은 가문의 위상이 든든한 받침이 되어 주지만, 장헌은 가문의 터를 닦는 것에서부터 혼자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몇 대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가문의 위상, 가부장의 지위를 자기 대에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아들 장창린을 유괴당한 후 목 놓아 통곡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천지에 죄를 얻은 것이 중하여 몸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부모를 여의어 부모 얼굴을 알지 못 하는 아픔이 온몸에 사무쳤을 뿐 아니라 한 명의 형제자매도 없어 그림자가 외롭고, 외가든 친가든 친척이 없어 혈혈단신이 스승의 하늘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은덕으로 무사하게 자라서 이제 몸이 영귀하게 되었지만 돌아보아 기쁨을 이룰 곳이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픔이 생전에는 풀릴 길이 없거늘, 하늘이 나의 불인함을 벌하시어 5-6개월 된 아이를 잃어버리니 죽는 것이 마땅하고 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마음을 어찌 하겠는가.”⁴²⁾

42)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21~22쪽, “내 텃디기 죄 어드미 등하여 몸이 세상의 난 디 일삭의 부모를 여희와 친안을 아지 못하논 통이 녹이의 미쳐실 썸 아니라 혼날 동기 업셔 그림지 외롭고 표문동성의 친이 업셔 혈혈일신이 스부의 여턴대은과 활히 지은으로 무스히 즈라를 었고 당시하여 몸이 영귀하논 도라 깃부름 고흘 곳이 업스니

아버지도 형제도 없고 일가친척마저 없는 상황에서 홀로 가장이 되어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사람, 거기에 가장권의 계승자가 될 아들마저 없어 버린 장헌의 마음은 참담 그 자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계발은 도덕적 우월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 성공을 목적으로 두게 된다.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권위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한 죽대는 없으면서도 ‘부귀’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을 잘 드러낸다.

장헌이 자기 대에 가부장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사람이 아닌 권력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의 행보는 ‘권력’을 좇는 부동(浮動), 그 자체였다. 정한 생전에는 당연히 정한을 따르고 공경했다. 이는 정한이 장헌 자신의 양육자이기도 해서이지만, 무엇보다 황제도 부모의 예로 공경하는 황태부 수각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³⁾ 정한은 조정 관리는 물론 재야 학자들까지 아우르는 사대부 권력의 핵심이었다.⁴⁴⁾ 그러나 정한 사후 정씨 집안이 경사를 떠나 고향인 태주로 옮겨가고, 정한의 조카 정흠이 황제에게 직간을 하다가 참형을 받는 등 정씨 가문의 형세가 기우는 듯하자 장헌은 새로운 권력에 붙잡힌다.

봉탄의 통이 싱전의 풀닐 비 업거늘 하늘이 나의 불인을 벌하사 오늬 속 된 아히를 일흐니 죽으미 반듯흐고 살미 어려온디라. 이 심스를 엇지 흐리오.”

43) 성조 황제는 정한에게 훗날의 영종이 되는 태자를 당부했으며, 이에 정한은 이윤과 주공처럼 황제를 보필했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1~2쪽, “원니 성조황제 님 봉의 문청의게 유도하사 티즈를 도오라 하시니 티지 집네 과도하시고 문청공이 디극 보호하여 디위에 즉하시미 공이 선대 유탁을 폐부의 삭여 관일명통이 날노 시로오니 이윤이 태갑을 훈함과 주공의 왕실을 근노흐미 이에서 더오지 못흐니라.”

44) 정한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그의 제자들은 모두 지위 높은 벼슬아치와 도학 높은 학자들이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 37쪽, “태부의 데즈 칠십여 인의 슈십여 인은 외덕으로 슈천 니 밧기 이시나 남은 데즈 등은 환심희열흐미 네부 등의 버금이라. 스십여 인이 금포옥디로 특슈 정성을 빼플고져 흐고 도학을 닳가 공명을 쓰로고져 흐는 대유현시 명공의 지렬의 맛고디를 피흐나 스부의 연석을 아니 참에치 못흐여 갈포 아의로 제제히 니르는다라.”

정흠의 장례에서 장헌은 자신의 권력형 속물성을 드러낸다. 정흠은 정한의 조카로서 정잠 형제와 함께 정씨 집안의 주요한 일을 책임진 인물이다.⁴⁵⁾ 그는 영종 황제의 복노 친정에 반대하고 그간의 실정을 직간하며 이를 부추긴 간신 왕진의 죄를 고발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죽게 된다. 정흠의 부음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태운산에 있는 정씨 부장으로 문상을 온다. 이빈과 양선 등 친우와 친척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온 것이다. 그러나 정헌이 아들처럼 기른 장헌은 조문을 오지 않았다. 당시의 조정 권력을 좌우했던 왕진의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헌은 집이 정부와 이어져 있어 협문을 통해 오갔는데, 왕진이 권력을 잡은 후로는 정부로 통하는 협문을 막고 정부의 대문을 지나는 일도 꺼려 우회로로 다녔다. 이날 모인 친우들은 이와 같은 장헌의 속물적 행동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며 괘씸하게 여겼다.

장헌의 친우들이 그의 속물적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괘씸해하는 말을 나누던 때, 누군가 정씨 집안 서쪽 담벼락을 넘고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정흠의 처남 화현은 담을 넘는 사람이 장헌임을 알고 노복에게 그를 결박하도록 한다. 노복은 도적인 줄 알고 장헌을 잡아 뺨을 때리고 욕을 하였다. 알고 보니 장헌이 남몰래 문상을 온 것이다. 노복에게 봉변을 당하는 중에도 장헌은 그 노복이 왕진을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조문 후에도 장헌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왕진에게 자신이 정부에 문상 온 사실이 알려지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씨 집안 사람들과 몇 마디 말도 나누지도 않고 급히 다시 담을 넘어 돌아간 것이다.

이와 같은 장헌의 속물성은 성품의 나약함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⁴⁶⁾ 그의 권력 추구는 외부에 휘둘리는 나약함이 아니라 신분적·정치적

45) 정한 사후 집안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태주로 데려간 인물이 정흠이다. 그는 또한 정잠의 아들 인웅의 양부이기도 하다.

46) 정병설은 정잠의 말을 근거로 <완월회맹연>이 장헌의 소인행을 나약한 성격에 기인

생존을 위한 치열함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들은 장헌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이기에 친구와 스승이 비웃음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정말 나약한 성품이라면 도덕적 비난에 스스로를 놓는 일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그는 성장 과정에서 남들보다 열배 백배 자기를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가 보이는 속물성은 나약한 성품으로 인한 도덕적 모자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진지한 생존의 전략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속물성은 애절하고 안쓰럽다.⁴⁷⁾

4. 효 윤리의 재설계, 대효(大孝) 서사의 강화

그동안 아버지들은 근엄한 앞면만을 내보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참모습이라고 말해왔다. 그것은 명예롭고 도덕적인 우위를 지닌 자의 모습이다. 몇 대에 걸쳐 공고하게 다져진 지위 위에 군림한 아버지는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이며, ‘올바름’의 징표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의 정점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문의 위상과 가장의 위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노출하는 장헌은 완성된 아버지의 이면과 어설품을 보여준다. 대립하는 정씨 가문과 왕진 사이에서, 정씨 가문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왕진에게 뵈보이지 않기 위해 정부와 거리를 두었던 장헌의 행동은 친우들에게 조롱받는 나약한 어리석음으로 그려진다.⁴⁸⁾ 그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병설, 앞의 논문, 252쪽.

47) 황제가 장헌의 선정을 칭찬하며 예부상서 집금오에서 일품을 더해 주려고 하자, 장헌은 직품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사한다. 이에 황제는 금백을 상으로 내린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20.

48) 장헌은 안찰사로 낙성촌을 지날 때 도둑으로 몰린 정인광 일행을 발견한다. 그는 정인광 일행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경태황제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결국 정인

들도 조상대 어디에선가는 장헌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가장이 되었을 테지만,⁴⁹⁾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무거운 고뇌가 있겠지만,⁵⁰⁾ 현재 권력과 명분을 지닌 가장의 자리에서 볼 때 장헌은 ‘아버지’들의 수치인 것이다.⁵¹⁾

장헌이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가 지닌 허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아버지의 질서가 이분법적 배제의 원리로 구성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장헌은 개인적 자질만 본다면 그들보다 못한 부류는 아니다. 앞서 보았듯 어려서 남다른 노력과 우수한 자질로 시속의 선비를 무시할 정도가 되었고, 문장과 외모 모든 면에서 일찍 성숙하여 정한의 기쁨이 되었다. 만약 장헌이 정한의 친아들이었다면 그의 삶은 또 다른 국면에 놓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내내 불완전한 지위에 있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정한에게도 사랑보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위치였다. 출사한 후로는 정한과 왕진이라는 두 권력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헌은 정잠 형제나 이빈 및 조정처럼 왕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조상에게서 공고한 가문의 가장 자리를 물려받은 그들과 스스로 일귀하는

광만 풀어주고 노비들은 하옥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헌은 정인광의 도주를 도운 죄인 선을 엄형에 처하라는 맹추를 말리기도 했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5; 권18.

49) 양선도 한때 경태제를 섬겼다가 다시 영종을 따른 일이 있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30.

50) 여장한 정인광은 장헌에게 후일 정씨 집안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면 장헌의 처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자 장헌은 죄인선을 몰래 풀어주며 자신은 정씨 집안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맹추의 위세가 무서워서 따랐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편지와 은자를 주어 정인광을 데리고 태주로 가고 정잠 형제에게 전하도록 했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9.

51) 양씨 집안 형제들은 장헌이 여장한 정인광을 첩으로 둔 일을 듣고 박장대소하고, 이윽에 눈이 멀었다며 장헌을 비난한다. 또한 장헌이 정인광과 정혼한 어린 딸을 후궁으로 들여 부귀와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며 힐난한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9; 권20.

불안한 가장의 자리에 있는 장헌은 감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한과 왕진이 서로를 소인 혹은 역적이라 칭하며 대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강요가 없었다면 그의 행동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장헌에게서 확인되는 속물형 아버지의 등장은 아버지의 권위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위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속물형 아버지는 일종의 파상적 존재로서, 가부장제적 상상력이 생산하던 군자적 가부장의 이미지들이 부서져 표상으로 이산되며 실재가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⁵²⁾ 장헌의 행동은 가부장제에서 인정받는 ‘불사의 아버지’를 추구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속물성은 가부장제가 숨기고 싶어 하는 내면의 오점을 직면하도록 한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순간 가부장제는 불사의 신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 옳음’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물형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위기를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제는 자신의 일부인 속물형 아버지와의 분리를 시도한다.

장헌과 같은 속물형 아버지의 등장은 가부장제와 아버지가 부분적으로 분리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가부장제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고 통치권을 유지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속물형 아버지는 이제 가부장제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들은 함께 불사의 서사를 공유할 수 없다. 속물형 아버지의 존재는 가부장제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속물형 아버지를 부정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속물형 아버지를 제거해야 아버지의 불사성, 가부장제의 불사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효’라는 메커니즘이다.

장헌은 어린 딸 장성완을 경태제의 후궁으로 보내려고 했다. 원래 장성

52) 파상적 존재의 의미는 김홍중, 앞의 책, 194쪽 참조.

완은 정인광과 정혼한 사이였으나, 황제가 정씨 집안을 밋게 보는 상황이라 황제의 총을 얻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황제궁에 보내질 것임을 알게 된 장성완은 부친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나 부모의 실덕에 저항하기 위해 죽는 것은 오히려 불효가 된다고 생각하여 살아서 절개와 신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후일 장성완은 외사촌 박교랑과 자신을 연모하는 범경화의 모략으로 음녀의 누명을 쓰게 되고, 권세가에 의해 가문이 풍비박산될 것을 두려워한 장헌은 장성완을 범경화와 혼인시키기로 한다. 이에 장성완은 절개와 신념을 지키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하기 위해 죽음 대신 자신의 낮가죽을 벗기고 귀를 벤다. 결국 그녀는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효를 실행하였다는 이름을 얻었다.⁵³⁾ 장성완의 효행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도를 고치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아버지의 도를 따르는 효와는 다른, 새로운 효 윤리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장헌의 아들 장창린 또한 정혼녀 정월염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친에게 효성을 다하고자 설득하고 위로하다. 무죄한 정월염과의 혼약을 깨는 일은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하면 그녀의 삶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후 장창린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부모 앞에서 정씨 집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씨 집안에 은혜를 갚고 정월염과의 인연을 이어갈 마음을 다진다. 그는 결국 정월염과 혼인하고, 박교랑이 정월염과 장성완에게 가했던 흉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부친을 설득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축도로 떠나게 한다. 이후 장헌은 자신의 과거 행실로 아들의 전정이 위태로울까를 걱정하며, 정씨 집안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

〈완월회맹연〉은 속물형 아버지를 대상으로 새롭게 강화·설계·강조되

53)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23.

는 ‘효’ 윤리를 보여준다. 초기의 ‘효’가 ‘아버지’를 불사(不死)의 존재로 만드는 인식·행동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면, 새롭게 설계된 ‘효’는 속물형 아버지의 자기부정을 요구한다. 이른바 ‘효의 역습’이라고 할 것이다. ‘효의 역습’은 효성스런 자식들이 중국에는 부모의 뜻을 되돌리는 서사로서, 이것은 ‘개과천선’의 문학적 수사로 나타난다.

개과천선은 조선후기 가부장제가 통제 불가능한 개별자 아버지들을 분리해 내는 서사적 전략의 하나이다. 조광국은 조선후기 별열 소설 전개의 한 축으로 효의 담론화가 작동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부악자선(父惡子善)’의 서술공식을 지닌다고 분석했다.⁵⁴⁾ 이때 개과천선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부정적 요소는 개인적 성품이다. 〈유효공선행록〉이나 〈엄씨효문청행록〉 등의 작품에서는 ‘악한 성품’의 부친이 개과천선을 통해 악을 제거하고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적 개과천선은 조선후기에 부각되는데, 〈창선감의록〉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다. 주인공 화진이 악한 모친 심씨와 불인한 형 화춘을 지효와 공경으로 섬겨 마침내 그들의 진심어린 개과를 얻어내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화춘이 개과 후에는 화진보다 덕이 더 높아졌다고 말할 정도이다.⁵⁵⁾

가부장제는 서사적 전략을 통해 일탈하는 개별자 아버지에게 대한 통제를 시도하지만, 장헌에게서 확인되는 속물형 아버지의 개과천선은 이전의 서사만큼 관념적이지 않다. 이는 관념적 서사로 문제를 추상화하고 회색시킬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위기적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속물형 아버지의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효 윤리의 재설계는 개인차원의 성품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기에 체제가 지닌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장헌은 조보를 보고 정잠이 북방의 노영에서 풀려 돌아온 것과 정인성과 아들 장창린이 급제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정씨 일가가

54) 조광국, 앞의 논문, 135~139쪽.

55) 김수연(2012), 앞의 논문 참조.

다시 세력을 회복하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집안에 다음 가장이 될 장창린의 앞날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행실 때문에 아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그동안 박대했던 며느리 정월염을 만나 용서를 받고 정잡 일가에 사죄를 한다.

(장헌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들) 창린이 온 세상을 기우리는 문장과 재주를 가지고 높이 과거에 뽑히어 황제의 영화로운 총애를 받아 부귀와 벼슬과 봉록이 크고 융성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행실과 처사를 지극히 머리를 써서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누추하고 비루하며 불의하고 배은망덕하며 신의 없고 도리에 어긋난 행실이 되어 천고의 꾸지람을 면하지 못할 바를 생각하니 심담이 서늘해졌다. 지금의 권문세가 (정씨)에게 죄를 얻은 것이 무궁하니 한갓 자기의 벼슬길이 길이 막힐 뿐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세상에서 행세하지 못하고 조정에서 서지 못하며 정씨 집안과 그의 당에 드는 무리들에게 얽하고 절절하게 탄핵을 당하고 구박을 받아 평생의 앞길을 헛되게 마칠 것이 분명한지라. 이렇게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니 잠깐 사이에 간담이 타들어가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⁵⁶⁾

인용문은 정잡이 북방에서 살아 돌아오고 그 아들 정인성이 장원 급제했다는 조보의 기사를 본 후 장헌의 모습이다. 그는 정잡 집안이 다시 황제의 총애를 얻고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과정을 목도하며 ‘간절히’ 안타까

56)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32, 67~68쪽, “중니의 간절이 앓기고 슬허하는 바 즈는 창린이 일세를 기우리는 문명지화로써 높히 농문의 탁영하미 청운 즈믹의 영총을 계승하여 부귀 작복이 호호응용홀 비어늘 즈기 일시 생각기를 그릇하며 흥신 처스를 디극히 모략있게 호노라 혼 거시 도로혀 누누비비호고 불의비덕하여 무신패행이 천고의 꾸지람을 면치 못할 바를 생각하미 심담이 서늘하며 당금 권문 세가의 득죄하미 무궁하니 즈기 한갓 작복의 길이 막힐 뿐 아니라 으지 아버 허물노며 힘어세 님어조를 능히 못호고 정가 당뉴의 엄엄절절호 탄박을 만는 빅세 전정을 헛도이 맞츠미 벼벼흐리라 호여 헤아리미 어즈러이 발하니 경긔의 간담이 초삭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더니”

위하고 슬퍼한다. 조보에는 정인성이 장원을 했고 장헌의 아들 장창린이 방안(榜眼)에 올랐다는 기사가 실렸지만, 장헌은 그것에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과거 행실이 아들의 앞길을 막아 집안이 서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장헌은 과거 정씨 가문에게 등을 돌린 것이 ‘지극히 머리를 써서 한 처사’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성품이 나약하거나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신 처스를 디극히 모략 잇게 호노라 혼 거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제 장헌은 다시 ‘지극히 모략 잇게’ 개과를 한다.

장헌의 개과는 변절과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간절함의 핵심은 도덕성의 회복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다. 그는 어리석고 못나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멸문의 화를 걱정했기 때문에 며느리 정율염과 사위 정인광에게 사죄를 한다. 남들은 어린 사람에게 비굴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장헌을 조롱하지만,⁵⁷⁾ 그에게는 나이가 아닌 권력이 진리이고 덕인 것이다. 개과의 과정까지 속물적 진정성을 제거하지 못한 장헌의 서사는 당시의 가부장제에서 관념화시킬 수 없는 현실적 위기를 문학적으로 표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가부장제가 속물형 아버지를 분리하고 가부장제의 질서를 지지하는 효윤리의 재설계를 위해 채택한 서사적 전략의 원천적 장면은 ‘순임금의 대효’이다.⁵⁸⁾ 순의 효행 서사는 조선후기에 특별히 강조되며, 일반적 효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효’이자 ‘성효’로 찬양된다. 그 핵심은 ‘아버지의 도를 고치는 것’이다. 순의 서사는 일종의 ‘효의 역습’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풍경이고, 그러한 풍경의 이면에는 가부장제의 생존 욕망이 존재한다.

57) 장헌이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사위 정인광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며 걱정하는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34.

58) 효의 서사는 순의 서사와 신생의 서사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역습을 통한 효를, 후자는 순종을 통한 효를 나타낸다. 조선전기는 양자의 서사적 대결에서 신생의 서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조선후기에는 순의 서사가 강화된다. 순의 서사 강화가 가부장제 및 사대부주의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순이 고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은 효의 역습을 지지하는 기원적 ‘풍경’으로 작용한다.⁵⁹⁾ 역성혁명이 맹자의 논리를 근거로 삼듯, 위기의 가부장제는 순임금의 대효 서사를 소환하고 신화화하여 자신의 불사에 방해가 되는 속물형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하는 ‘효의 역습’과 효 윤리의 재설계를 지지하는 것이다. 순임금의 서사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더라도 훗날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큰 효가 된다고 말한다.⁶⁰⁾ 이로 인해 자식들은 순의 서사를 원초적 효자의 서사로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아버지를 거부한다. 그러면서도 가부장제가 인정하는 ‘효자’와 ‘군자’라는 이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① 효는 순임금보다 뛰어난 자가 없도다. 후세 사람들이 신생이 (부모 말에) 순종하여 죽은 것을 일컫지 않고 순임금이 우물 옆에 구멍을 만든 것과 집 위에서 화를 피한 것을 더욱 대효라고 말을 하니, (이는) 목숨을 버려 이름을 이루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이 죽어 부모님께 더러운 이름이 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이니 어찌 이것이 큰 조심이 아니겠는가.⁶¹⁾
- ② 정인성이 금나라에 머무는 동안 금나라 왕의 정치를 도와 정사가 날로 밝

59) 인식틀로서의 풍경 개념은 가라타니 고진이 제안한 것이다. 김홍중, 앞의 책, 151~159쪽.

60) 『맹자』 「만장(萬章)」에 순임금의 부모가 순에게 창고를 수리하게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린 후 고수(瞽叟)가 창고에 불을 지른 일과, 순에게 우물을 치게 하고 순이 우물에 들어가자 흙을 쏟아 매장한 일이 나온다. 『광해군일기』, 고전번역원, “옛날에 고수(瞽叟)가 항상 순(舜)을 죽이려 하였지만 순은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하였으므로 고수도 기뻐하게 되었고 고수가 기뻐하게 되었으므로 천하의 부자의 도리가 정해졌으니, 이는 실로 만세의 표준입니다.”

61)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41, 43쪽, “효는 등순의 디난 지 업는디라. 후세의 신심의 순하여 죽음을 일컫디 아니코 순이 우물의 곁골 두심과 집 우히 피화하시믈 더욱 대회라 흐느니 흐갓 살신 생명을 츠마 못흐실 뿐 아니라 몸이 죽으미 취명이 부모고 더으믈 두리시미니 엇디 이 큰 조심이 아니리오.”

게 다스려지게 되었다. 임금의 밝음으로 인해 모든 관료들 또한 더욱 예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가다듬자 북방의 무지한 풍속이 바뀌어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도적떼가 바뀌어 선량한 백성이 되고 불효자가 효를 닦아 온순하게 되니,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제 간의 우애가 깊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가 있으며 친척 간에 사이 좋게 지내고 남녀의 분별이 있고 이웃끼리 서로 돕게 되었다.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죽이는 극도로 흉악하던 인심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할 만했다. 군자의 덕이 가는 곳마다 넓고 넓어 은혜가 흩어진 해골에까지 미치며 의리는 벌레 같은 미물에까지 이르니, 혈벗은 백성이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은 듯 봄볕을 흡족히 쬐고 단비에 목욕하게 하는 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와 같았다. 그런데 오직 소교완의 마음만 돌이키지 못해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일이 반평생 이어지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⁶²⁾

- ③ 이자염이 오직 (소교완이) 시키는 것에 순종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한 효성과 간절한 정성이 미치지 못할 듯하여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공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손뚝만큼이라도 품은 한과 원망이 없어 스스로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뜻을 얻지 못하여 점점 부덕이 일어나게 됨을 슬퍼할지언정 털끝만큼도 조금도 맺힌 감정이 없으니, 비유하건데 ‘오직 하늘을 보고 소리쳐 우시나 조금씩 나아가 다스려서 (부모가) 간사한 데 이르지 않게 하셨던’ 순임금의 성효라 할 만했다.⁶³⁾

인용문 ①은 출정을 앞두고 부덕한 의모 소교완과 불인한 동생 정인중

62)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4, 10~11쪽.

63)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51, 55~56쪽, “니소제 오덕 식이는 바의 승순흔은 니르도 말고 동동디효와 축축디성이 미디 못홀 듯 그 것치 순공함만 아니라 그 맘의 호리도 포한흔며 질원흔미 업서 스스로 정성이 박흔미 존고의 뜻을 었디 못흔여 점점 브덕이 창설흔를 슬허홀디언정 호발이 익체흔미 업스니 그 비흔미 오덕 민턴을 호읍흔시나 증증예불격간흔시던 성회라.”

의 작란을 걱정하는 정인성에게 그의 친모 화부인이 하는 말이다. 핵심은 불인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죽는 신생보다 권도로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은 순임금이 더 큰 효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인성에게 불인한 모친의 말을 따르느라 몸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다. 정인성은 쌍둥이 형제 정인광과 함께 〈완월회맹연〉의 자녀세대 중심인물이다. 정한의 차자 정삼과 화부인의 소생이나 정삼과 양부인에게 입후하였다. 양부인 사후 후처로 들어온 소교완은 자신의 아들 정인중이 아닌 양자 정인성이 적장자 지위에 있는 것을 꺼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인성과 그 아내 이자염을 해치려 한다. 소교완과 함께 작란하는 정인중은 순임금의 동생 상(象)의 후신에 비유되는바,⁶⁴⁾ 정인성은 순의 서사를 환기하는 인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②는 정인성의 서사가 순의 서사를 차용하고 있음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 정인성이 표류하여 금나라에 머무는 동안 북방 호지(胡地)의 풍속을 교화하여 금나라의 관료와 백성들로 하여금 예의의 정치를 실현하고 효의를 실천하게 했다.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인심을 바꾸는 치국의 도를 훌륭하게 폈지만 그의 마음은 의모 소교완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슬퍼할 뿐이다. 정인성의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일”은 바로 순임금을 대효로 부르게 된 사건인 “민턴(旻天)의 우름”인 것이다.

〈완월회맹연〉은 ‘효’의 윤리에 대해서는 인물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인성은 물론 그의 아내 이자염도 효성의 지극함을 말할 때는 순의 서사를 환기하여 비유하는 것이다. 인용문 ③은 자신을 해치려는 시모 소교완에게 마음과 행동 모두 정성을 다하고 소교완의 불인을 슬퍼하는 이자염에 대해 ‘순의 성효’라고 칭송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월회맹연〉이 순임금의

64)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61, 42~43쪽, “상세 미소 왈, 정시를 추락하며 부형을 욕먹일 즈는 반드시 이 사롭이라. 현데 등은 다만 디접을 아라 홀 뿐이니 이 씨의 그 스오나오물 보디 못히고 불인이라 디뎛디 못흐려니와 맞춘니 심상치 아닌 간옹이라. 빙공이 상혀 니르디 상의 후신(이 아니면 위곽의 녀시라 하시물 내 얼프시 드렸느니 정현보와 나의 양미를 희홀 즈는 촌인(此人)뵈기 나디 아니호리라.”

서사를 ‘효’ 윤리의 기원적 ‘풍경’을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5. 마치며: 아버지의 죽음과 가부장제의 몰락

장헌에게서 드러나는 속물형 아버지의 모습은 후대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자식과 공동체의 도덕적 우월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속물적 삶을 선택한 〈보은기우록〉의 위지덕이 대표적이다. 성품이 난폭하고 불인한 아버지지만 규정하기에는⁶⁵⁾ 간단치 않은 문제가 그의 삶에서 발견된다. 위지덕은 단순히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삶의 철학과 언어가 확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 위치청이 중시하는 사대부 공동체의 윤리적 ‘명분’에 흔들리지 않으며, 독자의 논리로서 그것에 저항한다. 이 또한 기존의 악인형 혹은 우인형 인물과는 다른 전환적 인물, 속물형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장헌과 비교하자면 장헌이 권력형 속물 아버지인데 반해 위지덕은 자본형 속물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다.⁶⁶⁾

속물형 아버지의 등장은 정치적·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제가 초자아로서 개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사회적 전환을 나타낸다. 국문장편에 등장하는 속물형 아버지의 속물성은 현대적 속물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현대적 속물은 고통과 쾌락과 행복과 불행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매개된 속물, 다시 말해 타인지향적인 속물이라 칭할 수 있다.⁶⁷⁾ 그러나 장헌과 같은 이들은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속물이라고 하겠다. 장헌이 정잠 식구들에게 부

65) 이지영(2015), 앞의 논문.

66) 속물형 아버지의 분화와 전개는 추후 별도의 논의를 기약해본다.

67) 김홍중, 앞의 책, 60쪽.

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매개된 것이 아니라 내적 계면적응에 의한 일시적 주저함에 가깝다. 오히려 그는 공동체와 구별되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며 친우집단의 도덕적 언어와 다른 개별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장헌의 행동은 가부장제가 볼 때는 체제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위기적 일탈이기에 분리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부장에 기반한 효 윤리를 가부장을 배제한 효 윤리로 재설계한 것이다. 이때 순임금의 대효 서사가 소환된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배제함으로써 진정한 효자, 참된 군자, 덕 있는 숙녀가 되는 서사의 원천으로 순임금의 대효 서사가 활용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효의 역습이라 말할 수 있는 효 윤리의 재설계는 가부장제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기적·일탈적 개별자인 속물형 아버지의 간절한 처지를 희화화하고 존재적 죽음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재설계된 효 윤리는 아버지를 배제하기 위해 개별자 아버지의 생존 전략을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속물형 아버지가 가부장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열등함으로 읽히도록 한다. 체제의 유지를 위해 연대하는 친우들의 외적 진지성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헌의 내적 치열함을 웃음거리로 삼음으로써, 장헌의 삶은 제거되고 부정되어도 되는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그 과정에 자식 세대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다.⁶⁸⁾ 그렇게 만들어진 효의 서사에서 아버지는 부재하는 존재가 되고 그 자리에는 더 강력한 관념적 가부장제의 욕망과 권위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부장제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간다.

68) 장헌의 선택을 비웃는 친우와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집단 가치를 절대시하고 이상화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개별자의 처지에 대한 성찰에 익숙하지 않으며, 집단가치의 모방자이자 가부장제가 수행하는 통제자의 역할을 대리하는 인물들에 가깝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창선감의록』, 국립중앙도서관본.
『論語』
『孟子』
『宋史』
『광해군일기』, 고전번역원.
- 강창동, 「조선조 종법제 가족주의와 교육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43-1, 2005, 109~135쪽.
-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 무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2012, 335~363쪽.
- 김수연, 「조선후기 한문단편에 나타난 농업과 농업인-經農과 治農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2014, 5~29쪽.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503쪽.
- 르네 지라르, 김진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7~368쪽.
- 윤사순, 「양반의 정신세계」, 『한국사 시민강좌』 29, 일조각, 2001, 46~67쪽.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2015, 83~109쪽.
-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창선감의록〉의 화진」, 『고소설연구』 32, 2011, 123~152쪽.
-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국문학연구』 4, 2000, 231~259쪽.
- 조광국, 「별열소설의 효 구현 양상에 대한 연구-별열소설 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2005, 135~161쪽.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 『민족문화사연구』, 1999, 102~131쪽.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수행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

- 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2015, 141~175쪽.
- 지두헌,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8, 1~446쪽.
- 탁원정,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5, 2019, 5~32쪽.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2003, 277~315쪽.

ABSTRACT

The snob-type father of the 18th century novel and
the redesign of filial ethics

Kim, Soo-youn

Hyo(filial piety), which has absolute respect for the father's will at its core, is a mechanism that immortalizes fathers, and constitutes the ethical core of patriarchy that operating based on paternal authority.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the patriarchal system was at its peak, many novels criticized and denied the father's *tao*, but also included the narrative of a child who is seen as a "filial son". On the surface, it seems that the *hyo* that sustains the father's immortality as well as patriarchy is participating in shaking paternal authority and threatening the status of the patriarchal system. In the process, the snob-type father and the great-*hyo* narrative stand out.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sis signs of patriarchy that are captured in the novel, centering on Jang Heon in *Alliance Formed at the Wanwöl Pavilion* in which the snob-type father character is in full swing in, the narrative context of filial piety, focusing on the great-*hyo* narrative. The snob-type father, represented by Jang Heon, symbolizes the discord between the individual father and the patriarchal system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Jang Heon reveals the point of separation from the patriarchal system as his snob-type father's serious survival strategy; however, the father is caricatured in mockery. In the process, King Shun's preexisting great filial piety is reinforced. Great filial piety goes beyond general filial piety, which follows the father's will and denies the father as filial piety. Great-*hyo*, which is redesigned to heal his father's *tao*, can also declare the death of an individual father who revealed the patriarchal system's weakness while pursuing survival. Although the immortal father dies due to the redesign of filial piety, the

patriarchal system extends his life.

Key Words Alliance formed at the Wanwöl Pavilion[玩月會盟宴], snob-type father, patriarchal system, great filial piety, father's Immortality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